

# 어르신들의 쉼터, 오랜 세월 지나도 '그모습 그대로'



지난 5월 15일 열린 전주 기령당 제420주년 기념일 행사.



매년 열리는 기령당 행사.

광해군 2년이던 1610년에 세워  
무계감 있는 한옥으로 서원산동에 위치

경로효친 사상 계승 기로연 재현행사  
매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진행

60세 이상 지역에 명망 높은  
유지들이 들어올 수 있어  
현재 이상철 전 전주시장이 이끌어



인사말 하고 있는 이상철 기령당장.

있는 한옥으로 서원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기령당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며 "전주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전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고 어르신 등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령당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 같은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령당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근 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당장 이상철)이 창당 420주년을 맞았다.  
창당 420주년을 맞은 전주 기령당은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는 기로연 재현행사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기로연 행사 역시 지난 5월 15일 김승수 전주시장, 김광수 국회의원 등 다양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기령당은 60세 이상의 지역에 명망 높은 유지들이 들어올 수 있으며 현재 172대 이상철 전 전주시장의 당장으로 기령당을 이끌고 있다.  
예로부터 전라관찰사와 전주부윤이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찾는 장소였던 기령당은 400여년이 지난 현재 역시 전주에 새로 부임하는 공직자들이 부임인사를 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기령당은 조선 광해군 2년이던 1610년에 세운 무계감



전주 기령당 기념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사진 왼쪽 상단)를 포함 효녀상 시상식(사진 오른쪽 하단)도 진행했다.

'청소년이 아름답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7회 전국형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7년 6월 10일(토) 오후 4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후원: 전주시  
대회문의: 063) 288-9700